

“정책공감 UP” 태안군민 대토론회 정책제안서

2017.12.20



목 차

I. 정책토론회 개요	1
1. 배경	1
2. 목적	1
3. 행사개요	1
4. 사전조사 결과	2
II. 토론회 주요과제 분석	10
1. 토론분야	10
2. 태안군에 바라는 점	10
3. 1차 상호토론 현장투표	10
4. 2차 상호토론 현장투표	11
III. 태안군 주요정책 반영	12
1. 기본방향	12
2. 토론 주요과제 연계성 검토	12
3. 토론내용 종합	21
4. 군정책 반영사항	26
IV. 부록	30
1. 1차 상호토론	30
2. 2차 상호토론	45

I. 정책토론회 개요

1. 배경

- 군민중심 소통·공감행정 실현을 위한 군민 참여의식 고취와 요구 반영을 위한 플랫폼 필요
- 현재의 참여는 단위 정책 및 사업에 국한된 상황으로 태안군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참여 노력 필요

2. 목적

-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을 발굴·평가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이 함께하는 공감행정”의 장을 마련
- 태안군 행정과 군민이 함께, 미래에 대한 발전방안을 토론하고, 상호간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로서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반영토록 함
- 집단지성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참여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조성

3. 행사개요

- 일시 : 2017. 11. 17일(금)
- 장소 : 군민체육관
- 참여주체 : 군, 군민,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
- 주요내용 : 군 미래비전과 주요 정책·현안 논의 토론의 장 마련
 - 참여자 원탁 난상토론 실시 (원탁별 퍼실리테이터 활용 전문토론 진행)

4. 사전조사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 태안군민 300인(원탁토론 참가자)
- 조사기간 : 2017. 10. 30 ~11. 7 (8일간)
- 조사방법 : 전화설문 및 LMS조사(개방형 조사)
- 분석방법 : 상향식 구조화 및 키워드 추출
- 조사 및 분석기관 : 코리아 스피크스(주)

2) 인식조사

- 응답자 인구통계

(1) 성별

구분	빈도(명)	비율(%)
여성	51	25.2%
남성	151	74.8%
합계	202명	100.0%

(2) 연령대

구분	빈도(명)	비율(%)
① 20대	0	0.0%
② 30대	7	3.5%
③ 40대	31	15.3%
④ 50대	72	35.6%
⑤ 60대	69	34.2%
⑥ 70대	19	9.4%
⑦ 80대 이상	4	2.0%
합계	202명	100.0%

(3) 거주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① 태안읍	60	29.7%
② 안면읍	31	15.3%
③ 고남면	9	4.5%
④ 남면	25	12.4%
⑤ 근흥면	13	6.4%
⑥ 소원면	24	11.9%
⑦ 원북면	22	10.9%
⑧ 이원면	18	8.9%
⑨ 기타지역	0	0.0%
합계	202명	100.0%

(4) 거주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① 1년 미만	3	1.5%
② 5년 미만	28	13.9%
③ 10년 미만	18	8.9%
④ 20년 미만	26	12.9%
⑤ 30년 미만	16	7.9%
⑥ 30년 이상	111	55.0%
합계	202명	100.0%

(5) 직업

구분	빈도(명)	비율(%)
① 농수산업 종사자	96	47.5%
② 제조업 종사자	4	2.0%
③ 유통 및 관광, 서비스업 종사자	34	16.8%
④ 일반 사무직 종사자	10	5.0%
⑤ 공공기관 종사자	13	6.4%
⑥ 전문 기술직 종사자	6	3.0%
⑦ 시민사회단체	7	3.5%
⑧ 전업주부	11	5.4%
⑨ 무직(은퇴)	10	5.0%
⑩ 기타	11	5.4%
합계	202명	100.0%

(6) 가구형태

구분	빈도(명)	비율(%)
① 1인 가구	11	5.4%
② 2인 가구	83	41.1%
③ 3인 가구	34	16.8%
④ 4인 가구	40	19.8%
⑤ 5인 가구	22	10.9%
⑥ 6인 이상	12	5.9%
합계	202명	100.0%

(7) 주거형태

구분	빈도(명)	비율(%)
① 아파트	24	11.9%
② 단독주택	153	75.7%
③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9	4.5%
④ 연립주택/빌라	11	5.4%
⑤ 원룸	1	0.5%
⑥ 오피스텔	0	0.0%
⑦ 기타	4	2.0%
합계	202명	100.0%

2)-1 태안군 거주에 대한 삶의 질 조사

구분	빈도(명)	비율(%)
① 매우높다	16	7.9%
② 높다	50	24.8%
③ 보통이다	101	50.0%
④ 낮다	27	13.4%
⑤ 매우 낮다	8	4.0%
합계	202명	100.0%

2)-1.1. 1번 문항 선택이유 조사(주관식)

구분	빈도(명)	비율(%)
1.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보장하는 자연환경 (공해 없어 공기 좋음, 나고 자란 고향이라서, 좋은 환경)	56	27.7%
2. 도시형 인프라 부족 (특별할 것 없는 교육/문화/여가 혜택, 불편한 대중교통, 신뢰도 낮은 의료 서비스)	36	17.8%
3. 변화가 느린 행정서비스 (답답함,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주민/원주민 간 갈등 조정미흡, 시급한 고령화 대책)	26	12.9%
4.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 심화 (농업 홀대, 농민소득보전 정책 부족, 쌀 농산물 가격, 어업인 지원 없음, 한계 도달한 자영업)	25	12.4%
5. 소통 원활하고 대상별로 적합한 행정 지원 (문화 공간 확보/무료공연, 다문화지원/정보화마을 지원, 효 장려 정책)	23	11.4%
6. 전환 필요한 관광 정책 패러다임 (관광객은 줄고, 주민 불편은 늘고)	10	5.0%
7. 산업 발달에 적합한 환경 (수산업에 적합한 청정해역, 사계절 풍부한 해산물)	9	4.5%
8. 높은 물가로 커지는 빈부격차 (소비수준 높음)	5	2.5%
9. 특별히 없음 (잘 하지도 잘 못하지도 않는 수준, 정착 시기라 판단 근거 부족)	12	5.9%
합계	202명	100.0%

2)-1.2. 삶의 질(객관식) 조사와 삶의 질 선택이유(주관식) 응답 비교

객관식 응답	비율(%)	통합비율	▶	주관식 근거 답변 분석	비율(%)
매우 높다	7.9%	32.7%		높다	43.57%
높다	24.8%				
보통이다	50.0%	50.0%		낮다	56.43%
낮다	13.4%	17.4%			100%
매우 낮다	4.0%				
합계	100%	100%		합계	

삶의 질을 묻는 객관식 질문에 ‘보통이다’를 선택한 비율은 50.0%, ‘매우 높다’와 ‘높다’ 7%, ‘낮다’와 ‘매우 낮다’는 17.4%로 나타났다. 이후 선택이유에 대한 주관식 답변을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이 높은 이유를 든 응답자는 43.57%, 낮은 이유를 든 응답자는 56.43%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질 객관식 조사에서 ‘보통이다’라고 선택한 응답자의 다수가 선택이유에 대한 주관식 답변에 대해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정적 응답을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1.3. 태안지역 주민 거주만족도 조사에 나타난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 비교

구분	세부내용	키워드
긍 정 적 지 표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보장하는 자연환경	공해 없어 공기 좋음
		나고 자란 고향이라서
		좋은 환경
	소통 원활하고 대상별로 적합한 행정 지원	문화공간 확보, 무료 공원
		다문화가족 지원, 정보화 마을 지원 원활
		효 장려 정책
	산업 발달에 적합한 환경	효과적인 힐링 연구소 프로그램
		수산업에 적합한 청정 해역
부 정 적 지 표	도시형 인프라 부족	사계절 풍부한 해산물
		특별할 것 없는 교육, 문화, 여가 혜택
		불편한 대중교통
	소득감소로 경제적 어려움 심화	신뢰도 낮은 의료 서비스
		농업홀대, 농민소득보전 정책 부족, 쌀 농산물 가격
		어업인 지원 없음, 양식업 수확량 감소로 소득 저하
	높은 물가로 커지는 빈부격차	한계 도달한 자영업
		높은 물가, 이웃한 농촌/어촌 지역이라 소비수준 높아
	전환 필요한 관광 정책 패러다임	빈부격차
		주민에 불편 끼치는 관광객
		관광산업 규제하는 법제도
		주차시설/휴식 공간 부족
	변화가 느린 행정서비스	기름 유출 사고 후 대책 미흡, 관광객 감소, 만리포에만 집중된 지원
		답답함 느끼게 하면서 동시에 까다로운 행정 절차
		이주민/원주민 간 갈등 조정 노력 부족
		시급한 고령화 대책
기타	특별히 없음	잘 하지도 잘 못하지도 않는 수준
		정착 시기라 판단 근거 부족

2)-2. 태안군에 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 혹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구분	빈도(명)	비율(%)
1. 생활환경 분야 :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 의료·복지, 문화체육시설 등	103	51.0%
2. 지역산업 분야 : 농업, 해양수산업, 관광산업, 제조업 등	62	30.7%
3. 공동체 분야 : 도농 균형발전, 마을 공동체 붕괴 등	22	10.9%
4. 자연환경 분야 : 미세먼지, 해양·생활쓰레기, 연안 환경오염 등	15	7.4%
합계	202명	100.0%

2)-2.1. 2번 문항 선택이유 조사

구분	빈도(명)	비율(%)
1. 부족한 의료/복지 인프라와 복지 전달체계 (대형병원 부족, 저소득층 지원 부족)	46	22.8%
2. 군민의 삶 등 피부에 와 닿지 않은 행정정책 (화력발전소 보조금 지정사용제도 개선, 이주민/원주민 융합, 미세먼지, 매연)	39	19.3%
3. 도농 복합형 균형 발전 방안 (농기계임대, 상하수도설치, 도서관/공원 신설, 높은 시장물가, 농촌개발 미흡, 대중교통 미흡)	38	18.8%
4. 지역 특성화 부족한 관광산업 (훼손되는 자연환경, 규제 많은 관광법, 특산물 먹거리 타운조성, 늘지 않는 관광객, 시설 부족, 서비스/음식값 비쌈)	24	11.9%
5. 산업 발달/보호위한 가이드라인 (치어 보호, 바가지 근절대책, 어업보호대책, 농산물 가격 보전)	22	10.9%
6. 경쟁력 떨어지는 (평생)교육/문화 환경 (타지로 진학, 부족한 쇼핑센터/영화관, 무대/행사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20	9.9%
7. 고령화 대책 미비 (노동력 부족, 공동체 사업 참여자 감소)	7	3.5%
9. 세심한 다문화 가정 지원 (관공서 통역)	3	1.5%
10. 부족한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 인구 감소)	2	1.0%
11. 생각해 본 적 없음	1	0.5%
합계	202명	100.0%

2)-3. 여러분이 생각하는 태안군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구분	빈도(명)	비율(%)
자연환경 자원	154명	76.2%
1. 아름다운 바다와 해수욕장과 산과 들판	93	46.0%
2. (국립)공원/트레킹 코스/관광 체험 시설	41	20.3%
3.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맑은 공기(공장 없어서)	9	4.5%
4. 잘 관리된 소나무 숲	6	3.0%
5. 사계절 내내 특색 있는 특산물(봄 먹거리, 여름 해수욕장, 가을 휴양림, 겨울바다)	4	2.0%
6. 중국과 인접한 위치(무역증진에 가교역할)	1	0.5%
생활환경 자원	28명	13.9%
7. 귀촌/귀어민 유인할 다양한 해산물(경제성)	20	9.9%
8. 황토 흙 덕분에 품질 뛰어난 뿌리채소(인삼, 고구마, 감자, 마늘, 생강)	6	3.0%
9.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등 산업 다양(경기 변동에 완충제 역할)	1	0.5%
10. 화력발전소	1	0.5%
튼튼한 인적자원	14명	6.90%
11. 스마트한 행정(행정119정책, 군민 배려하는 군정)	4	2.0%
12. 활성화된 마을공동체(지역 커뮤니티)	4	2.0%
13. 인심 좋고 예의범절 갖춘 사람들(안전한 지역)	3	1.5%
14. 잘 만들어진 평생교육 시스템	2	1.0%
15. 지역 축제(대하축제)	1	0.5%
16. 기타(딱히 없음, 활용 못하는 관광자원)	6	3.0%
합계	202명	100.0%

2)-4. 당신에게 예산결정권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분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구분	빈도(명)	비율(%)
1. 문화관광 분야	48	23.8%
2. 농어업 분야	36	17.8%
3. 교통인프라 분야	30	14.9%
4. 정주여건 개선 분야	24	11.9%
5. 체육여가복지 분야	22	10.9%
6. 상하수도 시설 분야	16	7.9%
7. 기타 분야	26	12.9%
합계	202명	100.0%

2)-4.1. 4번 문항 선택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1. 대출금리 인하 등 1차 산업 소득 지원책 (특용작물재배 지원, 농업용수 확보, 인력지원)	33	16.3%
2. 관광·서비스 산업 지원 (펜션, 캠핑장, 놀이공원, 호텔 유치)	32	15.8%
3. 군민과 관광객,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문화예술/체육시설 늘리고 종사자 처우 개선 (여가용/고급 스포츠/낚시/체험학습장)	31	15.3%
4. 대중교통 개편과 교통 인프라 확충 (직선형 노선, 고속도로 진입 IC)	28	13.9%
5.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환경 개선 (미세먼지 집진)	18	8.9%
6. 6차 산업 지원책 (체험관광프로그램 농가 직영, 가공판매 협동조합, 맛 평균화 할 향토음식연구기관)	11	5.4%
7. 스마트 행정 구현 (다문화가정 지원(양육, 통역),친절한 대민서비스, 복지전달체계누수방지, 일자리 지원, 해양 정화, 난개발방지)	11	5.4%
8. 열악한 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의료진 충원	11	5.4%
9. 특색 있고 차별화된 서민 주거단지 건축 지원 (태양광 설치 확대, 청년주택 보급, 도시가스 공급, CCTV 설치)	8	4.0%
10. 공교육 강화와 대학교 유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5	2.5%
11. 공공성 강화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4	2.0%
12. 당장 답하기 곤란(없음)	10	5.0%
합계	202명	100.0%

2)-5. 귀하가 생각하기에 다음 중 현재 태안군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분	빈도(명)	비율(%)
1. 고령화	120	59.4%
2. 환경파괴	27	13.4%
3. 지역산업 쇠퇴	25	12.4%
4. 군민감소	17	8.4%
5. 주거환경 낙후	13	6.4%
합계	202명	100.0%

II. 토론회 주요과제

1. 토론분야

- 사전설문조사에서 제시한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진단 입론
- 4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1차 상호토론

1) 생활환경분야

: 도시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의료기관,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주민(청소년)교육

2) 공동체 분야 : 지역공동체

3) 지역산업분야 : 관광산업, 농업, 해양수산업

4) 자연환경분야

2. 태안군에 바라는 점(현장 투표 응답자 215명)

- 1) 의료수준과 복지수준 높은 태안 : 26%
- 2) 민관협동으로 명실상부한 관광도시 태안구축 : 23%
- 3) 도심에 버금가는 농어촌 생활인프라(환경) : 15%
- 4) 농어업이 활성화된 태안 : 12%
- 5) 청소년 진학하기 좋은 태안 만들기 : 8%
- 6) 사람 많고 할 일 많은 태안(인구유입과 출산장려) : 8%
- 7) 멀리서 오기도 편하고 버스이용도 편리한 태안 : 7%

3. 1차 상호토론 현장투표

1) 도심에 버금가는 농어촌 생활인프라(환경) : 응답자 167명

- ① 미세먼지 대책마련(공장) : 28.1%
- ② 지역문화시설 확충 : 26.9%
- ③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프라 설치지역 확대 : 24%
- ④ 쓰레기 분리수거방법 다양화 : 15%
- ⑤ 공공화장실 관리권한 강화 : 6%

2) 민관협동으로 명실상부한 관광도시 태안구축 : 응답자 225명

- ① 특색있는 체험형 관광콘텐츠(먹거리, 해양레저)개발 : 36%

- ② 관광지 물가안정 대책마련 : 24.4%
- ③ 태안 랜드마크 건립 : 13.3%
- ④ 관광시설 개선 : 11.1%
- ⑤ 서비스 마인드 교육 : 7.6%
- ⑥ 민관 협의체 운영 : 7.6%

4. 2차 상호토론 현장투표

- 1차 토론결과 중 1개 분야에 대해 개선방안 제시
-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1) 태안군의 미래발전방향 : 환경 : 응답자 175명

- ① 미세먼지 기준치 상향조정 : 35.4%
- ② 쓰레기 소형화 사업(히다찌 기업사례) : 23.4%
- ③ 태양광 발전소 건립 : 18.9%
- ④ 노후시설 철거 및 리모델링 : 22.3%

2) 태안군의 미래발전방향 : 관광 : 응답자 162명

- ① 지역특색을 살린 랜드마크(운하 등) : 30.2%
- ② 생태 및 역사관광(체험위주) : 23.5%
- ③ 숙박시설 개선 : 8.0%
- ④ 해양레저 전용시설 : 9.3%
- ⑤ 대표축제개발 : 16.0%
- ⑥ 캠핑장 규제완화 : 4.3%
- ⑦ 향토음식개발(전복, 오리) : 8.6%

3) 태안군의 미래발전방향 : 농업 : 응답자 179명

- ① 귀농귀촌(소농) 제품 판로지원 : 24.6%
- ② 과학농업지원(드론농약기) : 10.6%
- ③ 농기계 임대지원 : 22.9%
- ④ 변동 직불금 도지역 평준화 : 8.9%
- ⑤ 대중국 농산물 물류 인프라 : 4.5%
- ⑥ 태안 농산물 브랜드화 : 28.5%

Ⅲ. 태안군 주요정책 반영

1. 기본방향

1) 태안군민의 토론내용을 반영한 군정정책 실현

-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 군정목표 및 군정시책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군민의 다양한 토론내용을 수렴하여 반영
- 7대 역점시책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을 통한 분야별 역점시책을 실현하는데 활용
- 군민의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와 참여기회 확대

2) 태안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제시

-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이 행정참여자로서 미래발전방안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
- 군정의 연속성을 위해 분야별, 계층별 차별화전략을 통해 실현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

2. 토론 주요과제 정책 연계성 검토

1) 의료·복지

(1) 상호토론 내용

구분	내 용
1차 상호토론(내용)	1) 의료시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구축: 종합병원, 응급시설, MRI, 노인전문복지병원, 보건소 확대 구축 - 의료진: 노인학 전공의사, 의료 전문가 2)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수혜군민 모니터링 필요 - 저소득층 복지지원 정책 개선 -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노인복지 지원금 확대 시행 - 기타: 콜기반 대중교통, 꿈사랑 카드 사용처 확대,

	<p>여성농업바우처 홍보와 개선 등</p> <p>3) 복지인프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시설 구축
2차 상호토론(내용)	<p>1) 의료시설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구축: 종합병원 - 운영: 화상의료시스템 도입과 구축 <p>2)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경제활동 장려, 고령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다문화 가정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출산 장려금 확대 시행,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모니터링 <p>3) 복지인프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사회복지시설 구축

(2) 정부 정책 및 군정시책 연계 방안

새 정부정책 연계	공약6. 의료비 경감 및 주거문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진료권역 중심 우수 거점 종합병원 육성지원
2018 군정시책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보훈대상자 생활안정시책 추진 • 태안군 보훈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친화 도시조성 • 나눔실천 행복가득, 우리이웃 기부Day • 우수봉사자 지원, 아름다운 배움터, 백화노인복지관 운영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 • 다문화 여성 지도자 육성, 다문화 이해교육 •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관리 강화, 빈곤사각지대 해소 • 취약계층 의료보장사업 • 빈곤극복 자활지원사업,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사업 • 복지종합안내서, 현장밀착 맞춤형복지사업 • 노인복지관, 경로당 건립 및 관리 • 중증장애인 주간보호기능 강화 • 어르신 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2) 관광

(1) 상호토론 내용

구분	내 용
1차 상호토론(내용)	1) 관광지 물가안정 대책마련 2) 서비스 마인드 교육 3) 특색있는 체험형 관광콘텐츠 (먹거리, 해양레저)개발 4) 관광시설 개선 5) 민관 협의체 운영 6) 태안 랜드마크 건립
2차 상호토론(내용)	1) 태안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2) 생태 및 역사관광(체험위주) 3) 숙박시설 개선 4) 해양레저 전용시설 5) 대표축제개발

(2) 정부 정책 및 군정시책 연계 방안

새 정부정책 연계	공약9. 문화·예술·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및 온라인 플랫폼 개발 • 외국어 안내체계 •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융합 관광산업 육성 • 국가 관광명소 제도 도입
2018 군정시책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광테마파크 조성 • 어촌민속마을 추진 •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전망대, 랜드마크 조형물 • 해양케이블카 설치 • 안흥 마리나 항만 건설 추진 • 곰섬 전통어업, 독살 체험장 조성 • 태안관문조성사업 • 주요관광지 포토존 설치 • 바다체험 프로그램 개발 • 바다 불꽃 퍼레이드 추진

3) 생활 환경 인프라

(1) 상호토론 내용

구분	내 용
1차 상호토론(내용)	1)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프라 설치지역 확대 2) 쓰레기 분리수거방법 다양화 3) 공공화장실 관리권한 강화 4) 미세먼지 대책마련(공장) 5) 지역문화시설 확충
2차 상호토론(내용)	1) 미세먼지 기준치 상향조정 2) 쓰레기 소형화사업 3) 태양광 발전소 건립 4) 노후시설 철거 및 리모델링

(2) 정부 정책 및 군정시책 연계 방안

새 정부정책 연계	공약8. 자연·사회적 재해, 재난예방, 생활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고령어르신 공동 생활복지주택 건설과 농촌 노후주택 개발 사업 추진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육성 • 낙후된 연안 여객선 및 접안시설 개선 • 섬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 • 유희 항만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 • 우리바다 되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2018 군정시책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이원·태안) = 미세먼지 제거 차량구입·운영 = 화력발전소 주변학교 공기청정기보급 =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 보강 • 급수취약지구 상수도 급수관로 지원 = 지역균형개발, 주민보건 향상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 주민재산보호 • 주민불편대상 개인하수도 정비 = 주민불편해소, 쾌적한 환경제공 도시가스 공급 배관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공급망 확대로 주민연료비 절감 = 정주여건개선 •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개량 사업 = 빈집정비 사업 = 슬레이트 처리 사업 • 방포항 젓개마을 해안경관 개선사업 • 해양쓰레기 자율적 수거체계 확립 • 어항관리선을 통한 침적 해양쓰레기 수거 •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사업
--	---

4) 교통 인프라 및 운영

(1) 상호토론 내용

구분	내 용
1차 상호토론(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안접근성 향상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 - 고속도로 IC와 접근성 개선 - 관광축제 관련 도로망 구축 - 마을진입을 위한 도로망 구축 2)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배차계획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미널, 학교, 서울 방면 등의 배차간격 단축 - 소형버스 도입으로 마을 곳곳 대중교통서비스 확대 3) 교통체계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정차 단속, 횡단보도 설치 - 신호등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 도심지역 이 외의 농촌지역에 인도설치 - 차량 밀집지역에 주차장 건설 4) 태안지역까지 고속철도 건설
2차 상호토론(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이원 연륙교 건설 - 서해안고속도로-태안 도로건설 - 태안-안흥 연결도로 건설

	2) 교통체계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보행개선을 위해 가로등 설치 -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도로옆 인도와 횡단보도 건설 3)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의 배차간격 단축으로 버스이용 활성화 - 태안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철도망 구축
--	--

(2) 정부 정책 및 군정시책 연계 방안

새 정부정책 연계	공약3. 지방분권화 및 균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페리연결 사업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장항선 복선전철, 보령선 철도
2018 군정시책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산-이원 연륙교(국도 38호 연장) 사업 • 서산IC-태안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 아동이 안전한 공간 옐로카펫 조성사업 • 대중교통(버스) 정보시스템 운행정보 제공 •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주차 서비스 확대 • 태안공영버스터미널 환경개선

5) 농어업 및 지역공동체

(1) 상호토론 내용

구분	내 용
1차 상호토론(내용)	1) 소작농가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2) 귀농·귀촌인에 대한 군차원의 초기적응을 위한 원스톱서비스(허가, 도로, 상하수도)지원 3) 태안 농수특산물의 브랜드화 4) 소규모 농업인에게 농기계임대지원사업 5) 가뭄에 대비 담수지,저수지 조성
2차 상호토론(내용)	1) 귀농귀촌(소농) 제품 판로지원 2) 과학농업지원(드론농약기) 3) 농기계 임대지원 4) 변동 직불금 도지역 평준화

	5) 태안 농수특산물브랜드화
--	-----------------

(2) 정부 정책 및 군정시책 연계 방안

새 정부정책 연계	공약4. 살기좋은 농어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도지역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 산촌특구지정 산촌재개발(귀촌인 주택분양) • 스마트팜 등 미래농어업 기반조성 • 농수산물유통체계 개선 • 농협의 유통기능 강화 • 농업회의소 설치 • 깨끗한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2018 군정시책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력온·배수 활용시설원예단지 조성 • 화훼 스마트팜 시범 사업 • 열대 기능성원료 실증 T/B 조성 • 귀농귀촌 안정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판매실습 등 = 소규모 모임체 육성 = 귀농·귀촌교육 추진(관심작목, 규모 등) = 귀농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 태안 도로역 조성 • 도시민 유치전략 • 태안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 • 태안6쪽마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 농수산물 가공식품 브랜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태안 이미지 활용 •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 우리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 수출전문 스마트 팜 온실신축 사업 • 우수 농·특산물 가공 유통 확대 • 지역 농수산물 농협유통 활성화 •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중부지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인력부족 해소 • 무인방제 시범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방제 시스템을 이용한 방제 = 미소곤충방제기술도입 및 품목별방제방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 김 생산지원 사업
--	--

6) 교육·문화

(1) 상호토론 내용

구분	내 용
1차 상호토론(내용)	1)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쉼터 및 시설 필요 - 청소년들의 정보교류, 문화체험을 위한 장소 제공 2) 알찬 축제를 위한 전문적인 축제운영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분야, 축제 규모, 전문적인 운영 필요 1) 도시와 같은 교육시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고등학교 구축 - 학생을 위한 단체와 시설 구축 - 학생 체험학습장, 수영장 등의 시설 구축 2) 공공 교육시설 운영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도서관 일요일 개방 3) 경쟁력 있는 교육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3부터 고3까지 집중적인 교육시스템 마련 - 타 지역과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 마련 - 취학전 아동교육 프로그램 마련
2차 상호토론(내용)	1) 지역민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마을 구축 필요 - 태안읍, 안면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골고루 배치 - 가족, 청년, 어르신 모든 계층이 누릴 수 있는 시설 2) 질 높은 문화예술 운영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뿐만 아니라 질 좋은 강사로 재구성 필요 1) 경쟁력 있는 입시교육 프로그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와 경쟁력 필요, 면지역 교육환경개선 - 입시정보와 교육수준 개선 - 지역산업체와 연계하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p>마련</p> <p>2)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학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기자재 도입 - 장학금 제도에 대한 개선 <p>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주민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귀촌 교육체계마련 - 마을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	--

(2) 정부 정책 및 군정시책 연계 방안

새 정부정책 연계	공약9. 문화·예술·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지정 및 집중지원, 문화관광 연계활성화 • 생활체육시설 대폭확충 및 공공체육시설 개방확대
2018 군정시책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계절 관광테마 공모전, 사계절 관광활성화 추진 • 신두리, 몽산포 해수욕장 도로개설 • 테마형 명품 해수욕장 조성사업 • 해수욕장 & 바다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태안군 관문 조성사업, 주요 관광지 포토존 설치 • 문화예술인들의 역량강화 •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 추진 • 귀농, 귀촌 문화혜택 알림을 위한 홍보물 제작 • 어르신 책 + 놀이 프로그램 마련 • 지역기반 기업과 함께하는 메세나 사업추진 • 수준높은 문화공연 추진 • 도서관 도서 구입, 전자도서 구입

7) 국도비 연계(사업)

- ① 정주여건개선 : 도시재생 뉴딜사업(국토부 공모사업)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 일반근린, 중심시가지, 경제기반
- ② 출산장려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행정자치부 공모사업)

3. 토론내용 종합

1) 의료 및 복지수준 높은 태안(의료·복지)

- 각 마을마다 노령층 1인 가구, 소외계층 주민을 관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스템 도입과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며, 군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 복지병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태안의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외부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태안 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이 확충,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에 있어서는 노인학을 전공한 의사, 의료분야의 각종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므로 전문적인 의료진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있으나 운영적 측면에서 화상 의료시스템 도입과 구축을 제안하였음
-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혜 받고 있는 군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2) 관광도시 태안 구축(관광)

- 태안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지역특색을 살린 랜드마크를 설치하고 생태 및 역사관광중심 관광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버스투어나 지역을 특화하고, 마을의 테마를 설정하여 농수산물 및 먹거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관광지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해양레저 시설 등 특색 있는 체험형 관

광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관광지의 물가안정대책마련과 상인들의 서비스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특히, 태안의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여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과 스카이 바이크를 활용해 해양레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관광객들이 다시 태안을 찾을 수 있도록 친절교육과 물가안정을 통해서 해양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다문화 가정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관광가이드, 통역, 음식개발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태안의 대표축제가 필요함,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군에서 축제를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함
- 태안군에서 슬로우 시티 브랜드를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3) 생활환경 인프라

-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의 다양화와 쓰레기 소형화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특히, 마을 내 분리수거 문제가 심각하며, 음식물 쓰레기통은 있으나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아 설치가 요구되며, 환경교육과 재활용 및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에서 날라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마련과 기준치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미세먼지의 측정을 정확하게하기 위해서는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측정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하였음
-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인프라 설치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하였음
- 경로당 및 일반주택에 상수도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였으며,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식수부족현상과 가뭄에 물 부족으로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해결방안을 요구하였음
-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과 생활환경이 위험해짐에 따라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노후시설 철거 및 리모델링을 제안하였음
- 해안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불법소각이 많아 환경오염이 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도록 주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4) 교통인프라 및 운영

- 태안군은 외부에서 접근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이에 따라 태안군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고속도로 IC와 태안까지의 도로망 구축, 관광축제와 마을진입을 위한 도로망 구축 등을 제안하였음
- 터미널, 학교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배차 간격을 단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특히, 서울방면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자들이므로 배차간격을 단축시키거나, 다양한 수도권 방면으로 이동하는 버스 노선을 구축해달라고 제안하였음
-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횡단보도 설치, 신호등 설치, 인도 설치 등 물리적인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제안하였음. 특히, 인도 설치는 도심지는 잘 되어있으나 외곽지역에는 거의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음
- 태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건설에는 대산-이원 연륙교 건설, 서해안고속도로-태안 도로개선, 태안-안향 연결도로 개선 등을 제안하였음

5) 농어업 및 지역공동체

- 소규모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쉽고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소작 농가를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허가, 토론, 상하수도) 지원과 농수산물 판로지원을 요청하였음
- 농·특산물 브랜드화를 통해 태안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였음
- 귀농인 및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변동 직불금 제도가 지역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도 단위까지 제한을 뒤야 하며, 지역별 도별로 평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군에서 청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통합임대시스템을 개발하여 정착지원과 농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건축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인허가의 어려움으로 귀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민들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6) 교육·문화

- 청소년들과 지역민을 모두 고려한 문화시설 구축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제안하였음. 특히, 청소년들은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받길 원하였고 지역민은 문화예술마을 구축과 모든 계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 건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현재까지 축제의 개수는 많으나 알차고 내용있는 축제운영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제안하였음. 이에 따라 질 좋은 문화예술 강사를 도입하고 전문적인 축제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민과 방문객이 알차고 보람된 문화를 즐기러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제안하였음

- 태안군의 교육문제는 단순히 입시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민의 인구유출과도 매우 연관성이 높다고 제시함. 이는 지역민들이 태안군의 질 낮은 교육시스템으로 인하여 외부의 질 높은 교육을 받기위해 태안군을 떠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태안군민들은 도시와 같은 교육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이러한 대안들에는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구축, 학생을 위한 단체와 시설 구축, 체험학습장과 수영장 등의 시설구축을 제안하였음
- 태안군의 입시생들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입시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지역산업체와 연계하는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하였음 또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주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귀농·귀촌 교육체계, 마을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 다양한 계층을 만족시키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 기자재 도입, 장학금 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4. 군정책 반영사항

1) 군청과 군민이 소통하는 행정추진

- 원탁토론회와 같은 소통의 기회를 활용하여 군청과 군민이 만나는 기회를 통해서 군정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시스템의 일원화 및 간소화가 필요하며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노력과 종합민원처리가 있어야 할 것임

2)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정책마련

- 주택가 골목에 분리되지 않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다양화하고, 주민에 대한 분리수거 교육과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발전소 및 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세먼지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 등 대책마련이 필요함
-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상하수도과 도시가스 설치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

- 지역 이미지개선 및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하드웨어적 시설로서 상징 랜드마크 구조물 및 해양레저체험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함
-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지역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대표 음식 메뉴 개발과 종사원들의 서비스 교육이 필요함. 또한 사계절 해양관광지로서 다양한 관광컨텐츠 개발이 필요함.
- 지역 농수특산물에 대해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지역 농수특산물이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이 필요함
- 농기계임대지원을 추진하여 귀농, 귀촌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건축 인허가, 상하수도 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방안이 필요함.

- 특히 청년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농지임대(구매) 지원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며 소농과 귀농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로컬푸드 매장 등 직거래 장터 개설이 필요함.

4) 대산-이원 연륙교(국도 38호선 연장 및 교량건설) 조기 건설 추진

- (필요성) 충남의 거점항만인 대산항 남부의 풍부한 관광자원(안면도, 천수만, 원산도 등)과의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음. 또한, 가로림만 단절 구간 연계로 대산항, 관광자원(안면도, 천수만, 원산도 등) 접근성 향상과 국토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개요 개요는 다음과 같음

노선개요	노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태안군 이원면 내리(만대항) - 연장: 2.5km(가로림만 단절구간) - 사업비: 2,000억원 	

- (기대효과) 태안군 고속도로 30분 이내 접근가능 면적 증가

※ 고속도로 30분 이내 면적 22%(113km²) → 39%(201km²) 향상(태안군 총 면적 516km²)

- (문화·관광·물류 회랑 구축) 수도권, 중부·강원·경상권 관광·여객·물류 회랑 구축, 접근성 강화에 따른 문화, 관광, 물류, 산업 활성화 기대

※ 수도권 접근회랑: 수도권(서해안고속도로) ↔ 국도38호선 ↔ 대산-이원 연륙교 ↔ 지방도 603호선 ↔ 국도77호선 ↔ 수도권(서해안고속도로)

※ 중부·강원·경상권 접근회랑: 대전-당진 고속도로 ↔ 대산-당진 고속도로 ↔ 대산-이원 연륙교 ↔ 지방도 603호선 ↔ 국도77호선 ↔ 보령-울진 고소곶로 ↔ 대전-당진 고속도로

※ 다양한 문화·여가 시설 입지 활성화

→ 서해안 (태안)어류를 총 망라한 해양수족관 시설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 극대화

※ 대산항 배후의 기존 물류·산업 시설의 태안군 북부지역 전이 예상

IV. 부록

1. 1차 상호토론

1. 의료 복지

- 위급상황 일 때 이동시간에 사망확률이 크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종합병원이 필요함.
- 전문대형병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응급시 대처하는 곳이 최소한 2시간이상 걸리며,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대형병원이 있었으면 좋겠음.
- 대안의료원 의료진 수준개선이 필요함. 전문의가 부족하여 무조건 서산으로 보냄.
-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혜택받는 군민이 실효성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지원 현황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특히 중복된 예산지원의 조정이 필요함.
- 저소득층에 태안읍 재활용 쓰레기 봉투의 지원이 필요함.
- 종합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귀농인인데 대부분이 의원이고 인턴들이 많아서 신뢰가 가지 않음.
- 노인복지 지원금 확대가 필요함.
- 태안읍에서 떨어져 있는 시골에 병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음
- 복지인프라가 부족함. 장애인이 지역내에서 그룹홈, 공동생활 가정의 필요함. 장애인들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함.
- 기초수급자 변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음. 남편 부부가 하우스 생활을 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각 지역마다 다양한 계층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 다름. 즉 종합사회복지 시설이 필요함.
- 의료시설 확충
- 저소득층 지원부족, 종합 복지 대책이 나온 후 개별적으로 분리가 되어야 했다. 나의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만 복지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다. 종합사회 복지관과 같이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 전공의가 부족하다.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을 서서라도 전문의의 확충이 절실하다. 매년 다른 큰병원으로 가라는 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가 불가능함.
- 꿈사랑 카드 사용처를 음식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줘야 아이들 방임이 방지될 것.
- 가맹점을 늘려서 미용실 등 다양한 사용처를 확보해야 함. 복지차원의 바우처를 실제 사용에 대한 홍보와 노력이 필요함.
- 응급실을 활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프면 도시로 나가야하는데 급한상황에서 대처하기가 힘들. 큰병이 있을때는 너무 먼거리까지 통원해야함.
- 태안 고속버스터미널에는 모두 병원을 가기위한 사람들이라 의료환경의

개선이 필요.

- 태안에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 태안의 의료시설 및 전문 의료진이 부족하여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음. 태안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이 확충, 개선되어야 함.
 - 그룹홈과 같은 장애인 시설을 태안읍에 1개 정도라도 해주었으면 좋겠음.
 - 고남면의 경우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아플 때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시설 확충이 필요.
 - 군 복지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
 -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이 남면 신원리에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복지예산을 수령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통한 복지예산이 집행되어야 함.
 - 행정에서 실태 파악이 힘들다면 주민자치위원 활용이 필요.
 - 현재 팀 단위인 사회복지팀을 과로 승격하여 증가하는 사회복지 요구에 적절하게 해야 함.
 - 태안 병원에 MRI 같은 시설이 거의 없음. 서산, 당진, 심지어 서울까지 가야한다. MRI 시설이 있어도 그걸 사용하기위한 환경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함. 또한 노인학 전공 의사가 없음.
 - 각 마을마다 노령 층 일인가구. 소외계층 분들을 관리할 수 있고 생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필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챙겨야함.(이원면)
 - 군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복지병원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
 - 태안읍내에 종합병원을 유치해야함. 보건소 확대개편 및 전문가 유입이 필요함.
 - 혼자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교통수단)
-

2. 생활환경 및 교통

- 상수도 설치 필요. 태안읍(산수리)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음. 식수걱정, 지하수 오염 걱정 등 문제 발생
 - 남면 몽산포 해수욕장 근처 땅의 개발 제한을 풀어주면 좋겠음. 원래의 교통길도 사라져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음.
 - 현재 일년에 2번인 쓰레기 분리수거는 부족함. 횡수와 방법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음.
 - 동문 4리 도시가스 공급이 아직 안되어서(국화연립비치빌라) 인근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시가스가 없어서 불편함.
 - 중국에서 넘어오는 쓰레기가 너무 많음. 자주 청소하는 행사를 열어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음.
 - 40~50대를 위한 문화시설이 필요함. 영화관보다는 공원이 필요함.
-

-
- 공공화장실 관리를 태안군민 L해주었으면 좋겠음.
 - 재난재해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 작성과 훈련이 필요함.
 - 남면에서 농사를 짓는데 현대자동차가 들어와서 먼지 때문에 벼의 수확이 어려움.
 - 상수도를 들여와 먼지를 씻어내고 수확을 잘 할수 있게 해주길 바람.
 - 기피시설 등으로 태안군의 자연환경과 군민의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음. 군민의 환경권과 안전을 지켜주길 바램.
 - 남면 양잠리에 귀농한지 6년째 인데 물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껴짐. 상수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음. 올해 가문 시에 물 부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함.
 - 농업보다도 식수해결이 우선임
 - 한서대 비행장의 소음 문제가 심각. 일상생활 시에 소음피해가 너무 큼.
 - 남면의 하수도 사업을 더 확장시켜주길 바람. 물을 떠놓으면 물의 색도 변하고 수질검사 부적합이 나오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을 개선해줬으면 좋겠음. 중심부인 태안읍은 시행하고 있지만 남면도 더 크게 시행해주길 바람.
 - 태안 마늘의 명칭을 스페인산이라고 칭하지 말자. 왜냐하면 시장가격이 떨어지고 타 지역은 지역명이 들어가 마늘 값이 더 높게 책정됨. 우리도 태안 마을이라고 명칭하자.
 - 만대마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 미세먼지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한다. 바람 방향에 따라 측정을 다양하게 해야함. 굴뚝 청소할 때 먼지가 심함.
 - 태안읍에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함. 신축은 정화조나 규제 등으로 설치되었지만, 일반주택에 상수도 보급이 높았으면 좋겠음. 지금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음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음.
 - 사회간접자본 국유화도로 사유지가 많아서 개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음. 따라서 군에서 빨리 보상을 완료하여 국유화해야 발전에 유리함.
 - 이원면 소재지에 있는 시장의 하수도 처리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음. 시장 상인들이 냄새나 환경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임.
 - 인구가 적은지역에 거리 CCTV보다는. 차량용 CCTV를 설치지원해주길 바람. 차량용CCTV를 통해 농사를 지을 경우, 농작물 도난사고를 막을수 있음. 한 대당 15만원이고 대량으로 지원하게 되면 좀더 싸고 도난과 범죤사고를 막을 수 있음.
 - 신동아 2차 아파트 회사가 부도가나 폐건물이 되어있음. 건물 자체를 없애거나 다시 사업을 해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음.
 - 태안화력발전소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음. 보상이 있으나 소원지역에는 보상, 혜택의 이점이 없음. 빨래를 널어놔도 오염이 되어 생활피해가 있음.
 - 태안군의 경우 고령화되어있어 행정의 간소화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남면 진산리 30가구 정도에 상수도가 안들어 와서 찌뭇물을 먹고살고 있음.
 -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함. 읍면에 민원을 넣었지만 쓰레기를 태우라는
-

답변만 줘. 주기적으로 치워주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음 처리장에 직접 처리하러 갔는데도 쓰레기를 안받아줌.

- 안면도 마을마다 가뭄으로 경로당에서 지하수 물을 쓰고 있음. 34개 마을 물이 짜다. 상수도 시설이 40%정도만 되어있음. 태안군은 상수도 보급과 농로 포장에 미흡함.
-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발전소를 줄이고 대체에너지를 찾아야함.
- 동문1리 시내에 쓰레기 비닐봉투 버리는 곳을 정확하게 지정하여야 함. 여기저기 놓으니까 냄새와 미관상 문제가 있음
- 화력발전소등의 시설로 인해 마을 분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위험함.
- 외국인들이 등초분을 때는 등 기본민원 업무를 보려 할때에도 가족을 모시고 가야 하는 것에 불편함이 큼. 기본적인 업무는 혼자서 할수 있도록 바꿔주길 바람.
- 안면읍의 경우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서도 낮에 쌓여있는 상태로 시가지가 깨끗하지 못함, 안내CCTV 설치가 필요함. 관광지 주변 쓰레기쌓인 곳의 정리와 주민의식 교육이 필요.
- 안면읍 마을회관중 34개 마을이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물이 너무 째. 상수도 보급이 시급함. 태안은 상수도 보급이나 농로 보장이 부족함. 지역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음
- 읍내뿐만 아니라 시골과 같은 외곽에도 폐기물 처리와 수거가 원활하게 되어야 함. 폐기물 수거 차량이 자주 다녔으면 좋겠음
- 동네별로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자연환경과 가까운 곳이 많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오염문제가 심각함.
- 태안지역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시설을 태안전지역에 새로 마련했으면 좋겠음. 신터미널 전광판에서만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
- 원북면에 살고 있는데 발전소에 대한 보상금을 원북면에 안주고 태안군에 들어가는지 지역주민이 쓸수있게 해야함.
- 근흥면 두야2리로 귀농하여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공장입구에 도로포장과 진입로를 확장해주면 좋겠음. 수출도 하고 있는데 길목이 좁아 제품 나가기가 어려움
-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안면도에 도서관만 있는데 다른 놀이공간이 없음. 중고생들이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음.
- 안면도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놀이 문화시설이 필요함. 이런 시설이 없어서 피시방등 탈선을 할 수있음. 안면도 도서관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조명도 개선이 필요함.
- 원북면 전기세 할인을 좀 더 철저히 필요.
- 군내 특산물 활성화 필요 A급은 서산으로, 특급은 서울로, B, C급은 태안에서 소모하는 실정임.
- 백화 초등학교 근처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전대책이 미흡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해주면 좋겠음. 인도가 있는데 인도 위에서 공사를 하니가 학생들이 다니기가 어려움.

- 남면 생활권에 영향을 끼치는 서산 부남면 환경오염이나 한국타이어 문제인식이 필요. 다른 시와 협의하여 해결을 부탁, 서산부남면(해양 상태 최악)과 태안 남면이 걸치는 곳에서 바람이 불면 냄새가 많이 나서 생활하기가 힘들.
- 학생들이 식당 이용 시 내는 비용에 비해서 서비스를 못 받고 있음.
- 지역 내 선후배 관계, 나이 관계등으로 학생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싶음.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주면 좋겠음.
- 버스 시간의 간격이 너무 기니 줄여줬으면 좋겠음. 고남면에 사는데 시간 낭비 문제가 심각할뿐더러 학생들 등하교나 지역주민이 불편함.
- 태안의 물가(물건 및 서비스)가 대체로 높음. 군에서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음.
- 남면 몽산포해수욕장 입구 도로가 없어서 매우 불편함. 또한 호폐수 처리 시설이 닿지 못하는 집이 많음.
- 안흥도 쪽 철도가 필요 또는 면, 이 읍간 고속도로 연결 필요.
- 보령~영목(해저터널 진행 중) 간 4차선 도로 확장 필요. 태안까지 고속도로 연결로 엄청난 교통 발전가능성이 있음. 상당한 관광지 발전 또한 됨.
- 태안읍에서 면이나 리 단위로 가게 되면 버스 시간이 불규칙해서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개선해주었으면 좋겠음.
- 도심지의 경우 도로는 잘 뚫렸는데 주차공간 부족으로 돌에 주차를 해서 교통이 혼잡해지고 사고가 종종 발생함.
- 인도가 부족, 차도만 많고 인도가 부족하여 이원면 만대마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함.
- 교통이 불편함. 태안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북남이 소외되어 연결이 안됨 이원면이라는곳이 오지라서 불편함.
- 시내 쪽에 신호등이 부족하여 사고가 빈번이 발생함. 속도 제한이라든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사고 유발을 줄이면 좋겠음.
- 대중교통 버스시간 배차간격을 작게, 회전교차로 및 폐도를 이용한 줄임턱 등을 많이 설치하여 태안군의 도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함.
- 태안에는 고속화된 철도시설이 필요함. 홍성 예산까지 철도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태안에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증감을 위해서 필요함.
- 태안에서 안면으로 난 4차선 도로길, 횡단보도가 너무 많아서 출퇴근 시간이 늘어남. 불필요한 공간은 점멸등으로 차가 원만히 운행될수 있도록 요구.
- 남면 소재지 진입로가 부족하고 지하통로가 있는데 진출입 계획이 잘못되어서 불편함.
- 안면도 사차선 쪽에 정류장과 횡단보도가 멀음. 무단횡단의 위험이 있어 이정표를 확실히 해달라.
- 원북 이종일 생가 1호 저수지 근처에 사는데 원북면 도로 4차선 계획을

발전소 입구까지 요구, 신호체계를 잘 정비해주었으면 좋겠음.

- 이원면 솔향기길 거주지 인접도로 정비가 필요, 대형버스 트럭 통과시 진공, 먼지 문제로 방지턱 등이 필요(노면불량)
 - 안면읍에서 태안으로 오는 도로에 간이교차로 문제, 제한속도가 너무 낮고 불편함. 4차선 도로인데 신호체계로 가는 것이 아닌 지하통로로 해야함.
 - 태안 읍내 특히 신 터미널 주위에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
 - 4차선 대로에 순환버스가 다녔으면 좋겠음. 굳이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 주로 다니는 태안읍을 다니면서 자동차를 안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 근흥과 태안을 이어주는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확장되어야 함. 교통량이 많아서 4차선 도로가 시급함. 수산물 판매에서 유통의 어려움을 겪음
 - 태안읍 읍내를 벗어나는 외지의 배차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음.
 - 서울로 가는 버스 배차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음. 2시간 간격에 있는 것을 1시간 마다 1대씩 배차해 주면 좋겠음.
 - 대형버스는 비효율적, 소형화 된 버스(마을버스)를 도입했으면 좋겠음.
 - 교통정리가 시급. 태안읍내와 구터미널쪽, K마트 주차장 쪽 도로가 너무 혼잡하고 좁아서 사고가 많이 남.
 - 이원-대산항 해상다리 건설이 필요. 이원면은 교통이 너무 불편함 교통편리 뿐만 아니라 관광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
 - 태안-이원간 도로 개선을 위해 도로 개설만이 아니라 조경문제도 신경써야 함. 도로를 개설이 시급. 커브나 안정성 있는 도로개설이 필요.
 - 인도가 필요, 새로 도로가 생겨도 차도가 거의 대부분이라 사고도 자주 나고 위험함.
 - 전축과정에서 도로 관련법 때문에 허가가 어려운 점이 많음. 농촌의 경우는 실제로 도로의 활용이 다양하게 나타나 예외사항을 고려해주었음 좋겠음
 - 새별해수욕장 근처 신하리 길을 넓혀줬음 좋겠음. 길이 좁아서 운전하기 불편하고 동물들도 갑자기 튀어나와서 위험함.
 - 이원-대산 간 연륙교 건설 제안, 태안 관광발전을 위한 조속한 건설 제안.
 - 교통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무원 및 부서의 전문성을 높여야하고 최소 5년 이상의 근무 유지, 교육투자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
 - 고남에서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는데 등하교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 아침시간의 버스수를 늘리고 노선도 확충했으면 좋겠음
-

3. 도농간 균형발전 및 지역산업(농어업)

- 이원면이 원북에 비해 작은 면이지만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발전이 필요함.
 - 국공유지 임대 경작(밭)을 포기한 곳에서 자라는 칠팔굴이 주변 농지까지 망치고 있음. 국가적 차원으로 큰 손실임. 무상 경작을 준다면 큰 이익이
-

될 듯.

- 마을 지원사업(이권사업)의 정보를 아는 소수(이장,반장 등)가 독점해서 마을 단합을 해침.
 - 몽산포 해수욕장 주변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해 경제적 침해를 받고 있음. 농림지역 지정을 해제해 주었으면 좋겠음.
 - 이원면 농협 공과금 기제가 부족함.
 - 남면(몽산포해수욕장) 14가구는 바로 바다로 하수 처리됨(다른 가구들은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하수처리됨)
 -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함. 안면도 쪽만 발전하지만 소원과 원북, 이원 쪽에는 에버랜드 같은 놀이공원이 생겨 균형적인 발전을 했으면 좋겠음.
 - 시장 사람들이 너무 불친절함. 수산물 무게를 속이고 가격을 비싸게 받음. 이러한 사람들에게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장사를 못하게 했으면 좋겠음.
 - 태안군의 높은 공시지가 때문에 귀농인들 진입이 어려움(주거환경 열악) 농업 진흥 공사 지역의 논 건축 허가를 잘 안내줌. 세입자를 받지 않는 공가들과 귀농자를 연결해주는 군 주관의 실질적 프로그램 필요
 - 화훼농업관련지원 필요. 농업부문 재정 지원 부족, 정보제공 부족, 군의 예산확보 부족, 태안군 내력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농업관련 지원 필요. 품종개량 필요성을 느끼나 방법을 모름.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필요함.
 - 몽산포 해수욕장 부근이 농림지역으로 설정되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있다. 해지시켜주기를 바람.
 - 인구에 비해 시장이 2개나 있을 필요가 없음. 규모 시설을 좋지만 그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음. 2개의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안목으로 실행해야 할 것.
 - 태안군 공무원(행정, 경찰, 소방 등)의 급여에서, 예를들면 10% 정도를 태안 사랑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제안, 태안사랑 상품권은 오직 태안에서만 소비되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것임.
 - 마을 어촌계는 계원의 규모나 소득을 볼 때 부대시설(바지락 작업장, 천일염 가공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이 부분이 신식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 태안 마늘의 명칭을 스페인 산으리가 H하지 말자 스페인 산이라고 하면 값이 낮게 책정됨. 타 지역은 지역명을 사용해서 값을 시중보다 높게 받고있어 태안도 태안 마을로 명칭을 사용하자.
 - 어업에 관련하여 바지락 등 공장시설을 신식 시설로 지원해주면 좋겠음.
 - 7시쯤 되면 상가 불이 꺼짐. 10시까지 운영 할 수 있는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카드의 사용이 원활하도록 군에서 영세상인을 지원.
 - 원북, 이원면 가뭄이 심함. 농업용수를 댈 수 있는 다음 수지, 저수지를 만들어 달라.
 - 농업(쌀) 소득 보장. 생산조절제 시행 논에 다른 작물을 심기 위한 전문 교육이 필요(품목생산량 조정, 판로 확보 등)
-

-
- 농어업을 크게 하지 않는 소작농가는 작물을 파는 것이 어려움. 농산물등을 쉽고 적절한 방법으로 팔 수 있는 직거래 장터등을 만들면 좋겠음.
 - 귀농 귀촌인에 대한 군 차원의 조기 적응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허가, 도로, 하수도)가 필요.
 - 치유농업과정(귀농귀촌 교육 필요)참여자 확대(공정성) 및 중복 참여 방지.
 - 남면 달산리 농사 농토에 쓸모없는 땅을 농지개혁을 통해서 쓸모 있는 땅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 농촌진흥 구역을 다른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길.
 - 농지 보험의 기초 소득 이량을 너무 낮게 잡아서 보상이 적게 됨. 보험사정사가 재해 피해 사정을 할 때 기본소득을 적게 잡기 때문에 보상액이 적음. 소득 조사를 농관원 등과 협력해 문제를 풀어야 함.
 -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필요, 농한기에 농사를 잘 아는 분이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교육할 수 있는 멘토링을 해주었으면 좋겠음.
 - 안면도에서 농업용수로 쓸려고 지하수를 팔려고해도 도청에서 못하게 함. 가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음.
 -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를 빌렸는데 마늘심는 파종기, 고구마 줄기 심는 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구입해서 귀농인 및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음.
 - 육쪽마을 브랜드 사업, 투자 사업에 비해 성과가 없어 개선을 해야 함. 투자금액을 낮추는게 아니라 육쪽마을 투자 제도 개선이 필요 함. 생산라인만 올리는게 아니라 판매 라인을 개선.
 - 읍면에서 귀농인들에 대해 사전교육을 통해 농수산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해주면 좋겠음. 홍보가 미흡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관광농업, 꽃박람회 시 경제 호황이었음. 관광농원 내방객이 1년 3만명 정도 되는데 관광객이 찾아갈 관광지가 부족함. 태안은 실제적으로 관광자원이 열악한 곳임. 관광 인프라가 필요함. 유적지 발굴 및 농촌체험시설 개발 인프라가 필요함.
 - 올해 가뭄으로 논농사가 힘들었음. 모내기 시 필요한 예비로 재배를 군에서 지원해서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좋겠음.
 - 축산업을 하는데 수로를 변경하는데 무조건 안된다 하지 말고 국유지 뿐만 아니라 개인 사유지 또한 개인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군청에서 방법을 강구해 달라.
 - 안홍성 유적지 개발이 필요함.
 - 농기계 임대 지원 사업이 필요함.
 - 1000평 정도의 농사를 하는 귀농인인데, 농기계 임대시 이동이 힘들어서 어려움이 있음.
 - 군에서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지원(임대, 운송지원)이 필요함.
 - 지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상품성이 인정을 못받고 있음
 - 농산물에 대해서 상품성을 인정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

홍보, 과잉생산 금지 등 정책마련 필요.

- 귀농하는 분들이 주택을 짓는 등의 인허가가 까다롭고 어려움. 사유재산 땅의 인허가 등이 어려워 사용하고 싶은 용도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홍성군을 예로 들어 농사 교육을 할 때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으며 체험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태안군은 자리에 앉아서 이론적으로만 들음.
 - 수산자원 보호 지역 내에 타 용도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이 필요함. 가뭄 시 농사가 안됨.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

4. 관광산업 및 자연환경

- 아름다운 관광지로써 발전 가능성이 큰 안홍성 동문 앞의 홍측한 철조망 제거를 원함. 관리도 전혀 안되고 폐허로 망가져 가고 있음.
 - 굴포운하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역사적인 중요성을 관광책자 등으로 소개하여 굴포운하를 관광지로서 더욱 발전시키면 좋겠음.
 - 관광지인 해수욕장 부근의 물가가 비싸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음. 관광 종사자 분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물가를 조절했으면 좋겠음.
 - 관광업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다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했으면 좋겠음 예를 들면 태안에 있는 국보를 보러 가는 교통이 불편해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음.
 - 태안은 관광도시인데 음식 인프라가 부족함. 표준화되어있지 않고 퓨전화 되어있음(게국지)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음식 개발과 향토음식 개발이 시급함.
 - 학암포 해수욕장이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시설이 미비함. 학암포 해수욕장의 부대시설을 향상시켜서 관광객이 더욱 많이 찾아오도록 했으면 좋겠음.
 - 소원면 의항2리 태백길을 좀 더 관광자원으로 소개하고 싶다 외부 차들을 위한 주차공간 조성 요청. 트래킹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 해양지역인대 해양레포츠를 운영할 만한 장소가 부족함.
 - 백화산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 주차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독샘 입구에서 샘골까지 연결되는 북부순환도로의 개서에 따라 주차장이 필요함.
 - 2023년 보이스카우트 잼버리를 새만금에서 하는데 2020년 보이스카우트 한국 잼버리를 태안군에서 개최했으면 좋겠음.
 - 문화가 있는 관광도시가 필요함.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캠핑장과 숙박시설을 활용해 투어를 만들었으면 좋겠음.
 - 해수욕장 장거리 수영대회를 추진하는데 태안군이 지원해줬으면 함. 지난번에 반대를 해서 추진에 어려움. 수영 대회는 태안군에 있어서도 관광 발전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

-
- 만리포에 즐길거리 볼거리(수중 수족관이나 해양전시관) 설치 제안.
 - 관광에 대한 주민의식(바가지요금)이 제고되어야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주민의식 개혁이 필요함. 군청에서 군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 계획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태안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부족함. 지역에 상징되는 거리나 장소가 없음.
 - 공해 없는 기업체가 들어와야 함. 한국타이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음. 경북 상주에서 이전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 모름. 서북에 화력발전소 남동쪽에 타이어 공장이 들어오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됨.
 - 생산시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공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군에서 발표가 필요.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가 주행 시설에 포함되어 있음. 연구소가 위해요소가 될 수 있음. 공해없는 공장이 들어와야 함. 안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도로를 넓히는 것도 좋는데 대표적으로 안면도 가는길, 농업과 관광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음.
 - 태안군 관광을 사회단체, 봉사단체 지도자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속을 해서(모임이나 회의) 군 전체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있으면 좋겠음.
 - 명품 해양관광이라고 해놓고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점에서 친절하지가 않음. 외도랑 옷차림을 보고 평가하는게 기분이 나빠 외부에서 관광을 하러 오더라도 기분이 나쁨, 음식값도 비쌌음.
 - 태안에 관리되지 않는 공동묘지를 없애야 함.
 - 관광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봉사단체, 각종 단체를 모을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음.
 - 남면 및 소원에 외곽도로가 생겨 시내의 상권이 안좋아 졌음. 그쪽에 인프라가 좀 더 활성화되고 관광적인 면을 넓혀 시내의 상권을 넓혔으면 좋겠음.
 -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계획만 하고 중지되어 있음. 개발을 진행한다고 선거 때만 얘기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음 관광객이 정주하지 못하고 연륙교 건설이 완료되면 더 심각해 질 듯.
 - 만리포 해수욕장이 얼마 뒤 토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음. 내 땅인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음 그러다 보니 현재 만리포해수욕장이 제일이지만 나대지가 많아 해수욕장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보기가 좋지 않음.
 -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발전하는데 문제가 있음. 이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지혜롭게 중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필요함.
 - 체계적인 관광을 할 수 있는 계획 및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태안을 개발해야 함.
 - 관광 홍보에 비해 인프라(도로) 취약(구룡포해수욕장~ 이태백전망대)
 - 태안의 먹거리 시설이 필요함. 특히 태안읍에 설치가 필요함. 태안읍에는 소개할 식당이 없음 예를 들어 밤도깨비 먹거리 시설, 8시만되면 깜깜하여 먹거리 타운이 태안읍에 있었으면 좋겠음.
-

-
- 학ampo 해수욕장의 샤워장 같은 부대시설이 미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지 못하고 있음. 시설을 개선해서 관광객을 더욱 오도록 하면 좋겠음.
 - 관광도시인 태안군의 특색 있는 음식, 기념품 개발 요구, 공모전을 자주 열어 아이디어를 모아서 좋은 관광 상품 개발 필요.
 - 태안만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필요 제주도의 경우 오메기떡처럼, 경주 황남빵, 안흥전빵처럼 태안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필요.
 - 관광객들이 쓰레기만 버리고, 소비는 안함. 관광객들의 여행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람.
 - 영목항과 보령을 연결하는 다리(연륙교)를 안면도가 스쳐지나갈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게 관광문화를 잘 조성해줬으면 좋겠음.
 - 보는 것 위주의 관광보다 놀거리 확충이 중요함.
 - 국방과학연구소가 있는데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음. 소음이 증가되었음. 민원을 넣어도 듣지 않고 지자체에서 해결되어야 함. 자연환경이 극과 극이라 환경이 변하고 있음.
 - 관광 휴양도시인데 국립공원의 규제가 심한 편, 텐트를 치거나 편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쉬고 싶지만 많은 규제에 부딪치게 됨. 관광을 할 수 있게끔 규제가 많아 완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다문화 가정 인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음. 예로 관광가이드와 통역, 음식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 문화도 적고 환경만 좋고 먹을 것도 좋지만 할게 없음. 관광 트렌드가 활동하는 체험이 대부분인데 보고 먹는 것 보다는 체험을 통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음.
 - 보령의 머그 축제처럼 태안의 체험관광문화 요구.
 - 환경적으로 이점이 많은 것을 이용하지 못하여 안면도 등의 일부 지역에만 물리는 것을 해결해야 함. 더 많은 자연 환경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관광인프라를 확충해주어야 함.
 - 만리포 해수욕장 모래를 붓는 사업을 함. 모래가 많이 깔여나가면 횃집들이 수족관물을 바다에서 해수족장 파서 호수로 끌어당김, 모래가 깔여나가면 횃집들의 관이 드러나 흉함. 이러한 물을 지하수 기관처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 해돋이 및 익사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증가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이 전혀 없음 군민과 관광객에게 이론적 교육이 필요함.
 - 축제추진위원이 좀더 전문적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음. 축제 개수만 많아짐. 이에대한 관리 감독을 군에서 제도적으로 지속적 운영 관리를 해야 함.
 - 요식업체(음식점)가 불친절함.
 - 균형 발전이 필요, 안면도, 만리포, 안흥과 달리 원북과 이원읍은 소외되고 있음 다양한 관광사업 필요(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필요) 예를들어 접근도로 및 인도, 관광객의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설치 필요.
-

5. 교육 및 문화환경

- 자녀교육문제가 심각함 특히 중3~고3까지의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음.
- 태안군에 고교 연합 단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음.
- 태안군 중앙도서관은 일요일에 개방하지 않음. 서산시 경우 월요일이 휴관인데 주말에 도서대여나 공부할 장소가 부족한데 개방하지 않아 불편함, 폐점 시간도 6시라서 학생들은 대여나 공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중앙도서관 개방을 일요일에도 했으면 좋겠음 학생들이 일요일에도 공부를 하고 싶어 평일에 도서관이 쉬었으면 함.
- 도서관 주말 휴일 날짜가 불편함 일요일에 중앙도서관이라도 열었으면 좋겠음.
- 구체적으로 태안군과 교육청에서 안전 수영 계획을 마련해야 함. 초등학생의 안전수영 교육을 하는데 수영장이 없음. 정규과정으로 10시간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수영장이 없어서 아이들의 수업을 할 수가 없음.
- 아이들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음. 청소년들의 비행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비행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없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태안군 도서관 일요일휴무로 인해 학생들이 이용하기 힘들. 평일휴무로 변경요구.
- 6살 3살 아이들이 있는데 취학 전 아동들이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있긴 하지만 도서관에 토요일 1시간 정도 질이 낮은 프로그램이며 군에서 보조하고 아이어머니들이 부담하는 육아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함.
- 공무원, 주민, 마을리더들의 환경문제 인식이 부족함, 군청 주관 강력한 환경문제 인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
- 아이들과 놀 수 있는 놀이시설(체험학습)이 안면읍에 있었으면 좋겠음.
- 대전 학사의 신설이 필요함. 지역민의 자녀들이 서울로 한정되어 있고 대전이나 인근 지역에 학사 건설이 되어야 지역민의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 개선이 필요함.
-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설립해줬으면 좋겠음(특성화고, 해양수산고 등) 취업현장에 보다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 태안군 내에 학생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제공요구.
-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단체와 시설이 필요함. 지금 단체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회의 3번만 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군민체육관은 행사중심지, 문화시설 중심지임. 태안을 알리기 위해 군민체육관 근처에 꽃답을 설치.
- 축제 가게 수에 비해 너무 단출하고, 관광효과가 나지 않음. 좀 더 실효적이고 전문적인 축제가 필요함. 무대에만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 학생들이 며칠씩 봉사활동을 하러 올 때 묵을 곳이 없다. 마을회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
- 태안의 교육시스템은 경쟁력이 없음. 안면 고등학교에 이번 수능 보는

사람이 9명 밖에 안됨. 태안이라서 도시에 비해 내신을 잘 받아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무시당하거나 경쟁력이 없어 뒤처짐. 또한 태안 내에서도 학교 순위를 나눠서 자괴감 같은 것도 느껴짐 통합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음.

- 지역인재 활용이 매우 적음. 지역에서 인재들이 서산으로 많이 유출됨. 군내에서도 지역인재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음 또한 외부대회 같은 경우 군청과 학교가 소통이 안돼서 놓치는 행사가 많음. 외부대회를 알 수 있게 소통을 해달라.
- 문화예술인들에게 무상공연, 재능기부를 가용하는 면이 강함. 군민이 원하는 수준과 전문가가 원하는 수준이 다름. 사회적 강요는 지양해야 함.

6. 인구정책(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 고령화의 문제로 젊은이들이 없음. 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며 노동력이 부족함.
- 어르신들이 많아졌지만 할 일이 농사밖에 없음. 무료한 시간이 많음. 농사 말고 무료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젊은 층에게 살아갈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음. 태안 자체가 너무 고령화가 된 면이 있고 젊은 층이 귀농을 한다 해도 젊은 층에게는 유리한 면이 없어 금방 떠남.
-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하여 모든 고등학교 무료급식을 통해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안정화 정책이 필요함.
- 외국에서 와서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는데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음. 외국인이라는 차별도 많고 아이를 혼자 키우기가 힘들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음.(임대주택)
- 태안의 고령화 문제로 기업유치가 필요함. 초등학교의 폐교문제, 직장이 없음 젊은 사람들이 타지로 나가지 않을 방안이 필요함.
- 노인 고독사, 기숙형 노인복지가 필요함. 공동생활 시설이 필요함 마을회관이 잘 지어져 있음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마을 공동시설이 필요함. 요양원 가기 전에 마을에서 기숙형으로 돌봄이 필요함.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젊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500만원)상향 요구.
- 고령화가 심각함.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음.
-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음 교육 수준을 높여 젊은 층의 이달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음.
-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187개 마을 2010명, 월 4~5천만 원 수급자에 대한 명확하고 실제적인 기준이 필요함.(불필요한 수급자들이 많음)
- 농사를 짓는데 일자리 지원이 부족함. 행정적인 지원(정책)마련.
- 다문화 가정의 본국 부모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 보령시에는 가족 초청 프로그램이 있음.

-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 태안에 노인 일자리가 부족함. 100세 시대에 80세 까지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젊은이들이 하는 곳이 많음(톨게이트나 매표에 관한 일자리) 운동하면서 돈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태안에 공영주차장이 앞으로 유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다문화 가장의 큰 문제는 고령화임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젊은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고령화가 되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움.

7. 청년일자리

- 태안 기업이 도시화 되었으면 좋겠음. 인구들이 늘고 취업 경제가 활성화되면 좋겠음 십년이 지났으나 변화가 없음
- 공해 없는 기업을 유치시켜 달라.

8. 기타

- 행정공무원의 불친절함(인허가 부서 공무원). 행정서비스 처리가 느림.
-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음. 태안군에는 민관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없고 정례화 시켜야 함.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진행할 때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진행하여야 상향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민관 협의체가 상설적으로 있어야 함.
- 외지인과 대화 방식이 달라서 불편함 캠페인이 필요, 답답한 지역 언어 특성.
- 봉사활동 장소를 늘렸으면 좋겠음. 청소하는 봉사활동이외에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으면 좋겠음(다른 지역과의 교류 등)
-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함. 군수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뀜
- 태안군 전체에서 적법한 질차를 맞추는데도 건축, 건설 허가가 힘들
- 태안읍에서 철재 공산품 등의 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서 비쌌
- 지역 내에서의 의견이 군에 잘 전달이 안 된다.
- 이장(이원면) 업무를 보면서 행정(면,실과)에 요청사항들을 말하는데 군에 보고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음.
- 마을 사업 전담팀 구성 제안. 담당 직원 교체 시 문제 발생. 마을 사업 전담 부서가 분산되어 있음, 한 곳으로 집약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팀 필요
- 발전소에 살고 있는데 송전탑 100미터 이내 거주민을 시주시켜 달라
- 행정이 폐쇄적이고 수비적임. 말로만 홍보하지 말고 문턱을 낮추고 뭔가 신청하면 안된다고 말을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음.(토론이나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함께 해결하자)

-
-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데 행정적 개선이 필요함.
 - 젊은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줬으면 좋겠음.
 - 폐쇄적이라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 세대간 화합이 힘들.
 - 정책 수반을 할 때 반드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들의 일정 규모 이상의 공론화가 필요.
 - 축사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적극적인 해결자세가 필요, 안된다면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대응 방안을 같이 고민해주길.
 - 군정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방법 적용 필요, 공청회나 설명회를 넘어서는 원탁토론 방식 등 적극적인 주민의견수렴 방식 도입 제안
 - 낮은 청렴도가 문제임. 이로 인해 마을 주민과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믿을 수 있는 행정, 깨끗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했으면 좋겠음.
 - 현재 행정기관이 투명행정을 했으면 좋겠음. 기업도시 성과가 골프장 2개 뿐. 홍보는 경제효과를 과장되게 진행했으나, 결과물이 군민이 알기 힘들. 이뤄진 것 그리고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투명하게 밝혀 달라.
 - 어촌계에서 수산과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타 지역에 비해 새로운 정책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 새로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발생에 대한 징계 등으로 보수적, 소극적 태도가 나타남. 태안군 공무원들의 새로운 정책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함.
 - 지적 변경이 필요함.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로가 있음에도 지적변경이 되지 않아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음.
 - 정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무원 책임의식 및 서비스가 필요함. 전문가 육성 및 교육에 투자해야함.
 - 태안 기름유출 피해 사고로 삼성에서 제공한 피해민 출연 기금으로 사회적 기업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돌아가야 함.
 - 이원면 간척지 에너지 특구 재지정 요청.
-

2. 2차 상로토론

1. 문화분야

- 지역민이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문화시설이 있는 태안이 되었으면 좋겠음.
작은 영화관 뿐만 아니라 레저시설도 많이 유치되었으면 좋겠음.
- 태안읍, 안면읍이 아닌 근흥, 남면 등의 면단위에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함.
- 지역개발을 위하여 문화예술마을 구성이 필요함. 작가 등 창작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마을을 구성하면 경제적으로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음.
- 문화예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강사진의 재구성 필요. 강사진이 미비하여 교육 수준의 질이 낮음.
- 가족, 청년, 어르신들이 각각 누릴 수 있는 문화, 소비시설 보충필요. 서산가서 소비하는 것을 태안으로 옮기자.

2. 관광분야

- 관광도시의 특색을 살린 슬로건을 만들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함.
- 관광 인프라가 구성되어야함. 운하사업을 시작해서 태안군을 한바퀴 돌 수 있게끔 관광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음.
- 지자체별 특색있는 콘셉트를 잡아 산업화 시키고 이미지 부각이 필요함.
예를 들어 보령 머드축제 등 태안군은 관광의 뚜렷한 이미지가 없음.
행정기관이나 군민들이 연구하여함 태안군의 문화관광발전을 위해 필요함.
- 태안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관광레저 산업이 발전되야
교통시설, 자원, 일자리가 증가할 것.
- 트레킹 코스와 수변 관광 등을 늘려서 관광분야를 활성화 시키면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함.
- 특별한 먹거리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태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 중국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대산항과 연계 등) 필요.
- 해안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 불법소각이 많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청결한 환경 조성.
- 서산 해미읍성처럼 태안군에 있는 문화재를 잘 보존하도록,
기름유출극복관은 기름유출이 자랑이 아니기에 관광지, 문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이원면 쪽이 안면도에 비하여 숙박업소 숫자가 많은데 낙후되어 개선이 필요함.
- 레저보트를 이용하고 싶은데 보트가 있어도 어민들과 충돌이 일어나 이용이 어려움. 대립을 해결할만한 방안이 필요함.(레저보트 전용 슬로프 마련 등)

-
- 다양한 시설(먹거리, 휴양 등 한 번에 할 수 있는)의 허가 규제가 까다로워 건설이 어려움. 자연환경만 즐기고 지나가는 역할밖에 하지 않아 먹거리 개발이 필요함. 전복을 이용한 코스요리, 중국 사람들을 위한 해삼을 이용한 먹거리 등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여 활용해야 함. 태안의 먹거리 개발이 시급함.
 - 보령머드축제와 같은 세계적인 축제 등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필요.
 - 관광분야를 넓혔으면 좋겠음. 버스투어나 지역을 특화하고 마을마다 테마를 주어 농산물, 먹거리를 이용하였으면 좋겠음.
 - 슬로시티의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음. 이익이 무엇인지 노인센터, 경로당 같은 곳에서 집중적인 교육, 홍보 필요.
 - 해수욕장에 인가, 비인가시설의 차별을 없애서 정식 지정이 안된 곳에도 공평하게 지원하게 해야함. 관광객은 비슷하게 오는데 기초시설이 매우 부족함.
 - 노인분들에게 관광지 홍보 필요. 태안 8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 유튜브해 전시관, 태안 8경을 제대로 홍보요. 다시 새로운 관광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홍보하여 다 많은 방문을 이끌도록 하여야 함.
 - 태안 지역은 양식으로 전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외부에서 셰프를 초빙하여 요리 개발이 필요함. 읍면 단위가 아닌 관민의 협의체를 만들어 관광요리에 대한 요리 개발이 시급함. 향토요리의 개발이 필요(전복코스요리)
 - 자연관광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안흥성, 소근진성 등 관광인프라 시설 투자로 관광 도시를 활성화해야 함.
 - 캠핑장 단속이 너무 심해 운영이 힘들. 캠핑장 양성을 위해 좀더 캠핑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요.
 -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관광객들의 무질서가 개선될 것.
 -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친절교육과 물가안전을 통해서 친절한 태안. 해양관광도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함.
 - 바닷가를 활용해 관광사업을 조성했으면 좋겠음. 사계절 상품개발을 했으면 좋겠음.
 -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함. 개인이 추진하는 관광사업에 대해 할 수 없다는 말로 도움을 주지 않음 그런 방관이나 반대의 자세보다 민관 행정이 적극 협력하여야 관광사업이 발전할 것이라 생각함.
 - 관광분야를 더욱 이용하게 해야함. 미니 에버랜드처럼 놀이공원을 만들고 태안의 천해 자원 등을 이용하여 더욱 관광분야를 넓히는 방향을 원함.
 - 해수를 끌어들여서 해수욕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음. 차별화된 해수욕장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예를들어 만리포의 경우 서핑이나 해수욕장 별 다양화 된 사업이 필요함. 모래사장이 있는 해수욕장이라는 개념이 아닌
-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이 필요함.

- 관광 홍보가 제대로 되는 태안이 되었으면 좋겠음. SNS 홍보 개선 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으면 좋겠음.
 - 슬로시티 태안으로 관민이 협력하여 관광사업의 적극화 필요(태안 5대 먹거리, 5대 농식품 등 선정)
 - 펜션 가격이 증구난방임. 안정화되어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함.
 - 슬로시티 관광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환경보존이 잘 되도록 하고 군청에서 관리하여 주민에게 교육이 필요함.
 - 해수욕장 발전 문제, 태안에 해수욕장이 30곳, 관광객은 태안주민의 생존과 직결되기에 도로포장, 교통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관광객들이 체험마을을 이용하러 오면 다시 또 발걸음 할 수 있게 지역주민과 유대관계가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농업도 관광사업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태안지역도 농사가 휴경일 때 그것을 관광사업으로 봄에는 청보리, 여름에는 해바라기를 이용했으면 좋겠음.
 - 태안의 관광개발을 안면도 위주에서 태안 전지역, 특히 소원, 이원, 원북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실천이 필요함.
 - 지역 내 관광사업의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골프장은 태안에 도움이 안됨. 골프장 운영에 따른 세수는 태안으로 오지않아 교통 환경 등 문제만 발생시키고 인력도 외지에서 창출되는 등 문제가 많음.
 - 안면도에 먹거리는 풍부한데 볼거리와 놀거리가 없어서 관광객이 즐길 거리가 없음. 관광객이 즐길만한 관광아이템(놀이공원 등)의 개발이 필요함.
 - 관에서 민간사업을 대신하려고만 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움을 주더라도 관만 주도하는 것은 주민들의 경제권을 빼앗게 됨.
 - 관광지 진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차량등록제를 실시하여 환경부담금 처럼 관리비를 부과 하여야 함.
 - 권역별로 특색있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해야 함. 태안의 먹거리는 정막 특색있는 메뉴가 없음. 새우, 낙지 코스요리 등 메뉴개발이 필요함.
 - 랜드마크를 개발해야 함. 내국에서 왕래가 많은 곳 예를 들어 경리단길이나 명동처럼 태안 문화의 길처럼 지역의 랜드마크를 개발하여 활성화 될 수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음.
 - 호수공원처럼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 명소 마련이 필요함.
 - 안면도 청정지역화 필수. 모노레일이나 전기자동차 등 청정지역을 만들어 관광지역 특수화.
 - 슬로시티 인증만 받고 어떤 특색이 부족함. 슬로시티 브랜드를 활용한 태안군의 관광 특색을 만들어야 함.
 -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함(태안의 특성에 맞는 관광서비스업 군의 지원육성)
-

-
- 태안이 전국에서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특색있는 콘셉트를 개발해야 함. 이를위해서 지자체 및 태안군청의 대기업(삼성버랜드)인력 및 자본 유치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안면도 관광지에 다른 놀이시설이 들어왔으면함. 다른 관광지와 연결되는 놀이시설이나 휴가철에만 놀러오지 말고 겨울철에도 관광객 유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잘하는 태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음. 특히 수영인도 천만명이 되는 만큼 관광 수영 대회와 같은 레저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음.
 - 특색이 없는 관광지. 안면도 등의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바가지 요금이 없는 참여형 관광지를 개발했으면 좋겠음. 대표하는 상품이 없음
 - 해양레저 체험상품을 가졌으면 좋겠음
 - 스카이 바이크를 활용해 관광레저를 활성화 했으면 좋겠음
 - 만리포 해수욕장 공공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 용자, 개발 모두 어려움. 하루빨리 관광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함. 1200평을 개발하려면 7,8명이 토지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해서 발전이 불가능함. 관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절실함.
 - 통과하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 수 있는 관광지를 위해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이 필요(대형 놀이공원 등)
 - 태안군, 어촌, 관광객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함. 군에서 어촌과 관광객 사이를 잘 조율해야함.
 - 특산물(자연산굴)을 더 홍보하여 태안하면 생각나게 홍보가 필요함.
 - 관광문화, 기업도시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발전을 꾀해야 함.
 - 중국과의 교류를 확장하고, 태안의 자연환경을 홍보함으로써 중국 관광객들을 이끄는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충○하여 젊은 청년들이 태안에 올 수 있게 해야함.
 - 관광에 관한 홈페이지를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음, 태안군은 자연밖에 없어서 너무 재미없게 꾸며있음. 1박 2일 코스나 2박 3일 코스를 잘 꾸미고 재미있고 콘텐츠가 많은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음.
 - 관광개발을 위해 보존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곳인데 지정된 국립공원인 사유지의 정책을 완화해야 할 것 같음 주민의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피해를 받게 됨.
 - 소원면 개목항의 기반 시설을 확충해줬으면 좋겠음.
 - 32개 해수욕장 전체를 동시에 활성화 하기는 힘들. 유명 해수욕장을 축제 및 행사(수목원 등)로 더욱 키우고 낙수효과로 태안 전체 해변이 활성화 되길 바랍.
 - 너무 낮은 해수욕장과 항구를 만들게 아니라 통합을 시켜 운영해 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나머지는 자치로 맡겨야 특색이 살아날 것 같음.
-

3. 농어업분야

- 귀촌인들을 위한 농사 판로개척이 기반이 되어야 귀촌인 유입이 될 것 같음. 소량이라도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상설매장 같은 것이 많았으면 좋겠음.
- 농촌 고령화로 10년 이내 붕괴예상.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과학농업이 되어야 함.
-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 농기계 지원 사업 등 농촌 노동력 해소방안 필요.
- 농어업 분야 물류 인프라 개선(태안군-만대항, 연륙교-대산항-중국), 수출입 관련 물류비용 절감과 농어업 물류 이동경로 확보 필요(가로림만 연륙교 건설)
- 많은 주민, 귀농인이 살 수 있는 태안이 되었으면 좋겠음. 특히 청년 귀농인이 태안으로 올 수 있도록 타 지역 벤치마킹 뿐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함.
- 변동직불금을 지역별, 도별로 평준화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별로 격차가 심하고 현재 경기도 기준을 도 단위까지로 제한이 필요함.
- 드론 농약 살포기를 지원해주었으면 함.
- 소작농이 농작물을 쉽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으로의 접근을 쉽게해서 판매활동이 쉬워졌으면 좋겠음.
- 태안을 대표하는 농산물 브랜드화가 이루어져야함. 마늘을 태안의 브랜드로 만들었으면 좋겠음.
- 유명한 관광지로서 사계절 내내 꽃과 나무를 잘 심는 태안이 되었으면 좋겠음. 꽃축제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지역에서 화훼 정원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음.
- 태안만의 먹거리, 농산물 등 차별화되고 친환경적인 농수산물식품의 개선이 필요함. 태안만의 특산물이 부족하여 특화된 분야 필요.
- 농지, 농림지역을 다른방향으로 쓸 수있어야 하는데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 특히 330평이 넘지 않으면 외부에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 정대농지에 대한 완화가 없다면 지속가능한 귀농은 불가능 할 것.
- 효율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병충해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농민에게 제공이 필요함.
- 농약값 절감. 병충해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정보제공에 예산투자가 필요함.
- 안면도는 농업이나 어업이 주가 되지만 일하는 환경이 너무 안좋음 농업과 어업이 일하는 환경을 개발하고 싶어도 안면도가 개인이 일하는 환경을 증진시켜서 업무환경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군청에서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함.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산물을 군에서 전량 매입해서 소매인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찾아야 함. 수산물을 경매로 외지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음. 꽃게는 태안에서 나오는데 서산 당진이 저렴함 수산물 유통을 군에서 관리해야 함.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중점을 뒀으면 함.

- 군내에서 청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 통합 임대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정착지원금도 지원해주고 농업교육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음.
 - 농촌에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함. 외국인들을 군 관리하에(단체계약, 임금, 거주지) 일정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 조개 캐기 등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 건축 인허가 절차가 복잡함. 토지를 구입했으나 인허가의 불허로 귀농을 하지않고 보류하는 사람들이 많음
 - 다른 지역시장을 보면 청년들이 장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음.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책이 갖춰진다면 젊은 아이 엄마들이 시장에 가기 편하고 젊은 층의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있음.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귀농인들이 태안 기술센터 등을 이용해서 농어업을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태안, 귀농 및 귀촌인들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 교육이나 소외의식해소, 물가, 오래걸리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함.
-

4. 교통 인프라

- 이원 만대- 대산에 해양교를 놔서 보련과 연결되어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시켜야 함.
 - 대산과 이원 쪽 다리 공사가 빨리 완공되어야 함.
 - 서산 IC에서 태안까지 오는 도로 개설이 필요함.
 - 홍성-서산 A,B지구 - 안면이 연계되는 관광철도 구축 필요, 중국과의 교류도 고려해서 철도교통 확충이 필요.
 - 도로인프라 개선 필요 (2002년 꽃박람회 관련, 신온리 튼튼농업 관련 접근도로 불량)
 - 원북면 대중교통 개선 필요 태안까지 나가는 첫차 시간도 늦고 1시간 40분정도의 배차간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 버스체계 개선이 필요.
 - 교통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캠페인 실시, 관련 공무원 부서의 전문성을 높여 안전한 태안군을 만들어야 함.
 - 교통인프라 확충, 관광객이 접근하기 쉬운 교통을 만들어야 함.
고속도로IC개통, 철도 개통 등 관광지가 좋지만 교통이 불편해 오지않고 있다고 생각함.
-

-
- 남면에서 안면읍까지 4차선 도로를 확충해야 함. 태안읍에서 안흥까지 4차선도로 확충, 관광객 유치시 이동시간이 너무 길어 시간이 아까움.
 - 만대-태안읍을 잇는 해안도로 조성 시급, 서산을 거치지않고 태안으로 바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필요.
 - 태안에 고속도로 유치가 시급 태안에 기업을 유치하기위한 필수 인프라.
 - 외곽지역에 인도가 전혀 없음 시외지역의 인도설치 필요 현재는 도심지역 중심으로 인도가 설치됨. 횡단보도 설치 필요 외곽지역 횡단보도 부재로 안전한 보행환경 저해.
 - 철도시설을 유치해서 교통 인프라 확충, 관광자원 개발과 연관시켜야 함.
 - 도로부분 인도설치 예산확보 필요 도심지역이외의 외곽지역에 인도가 없어 주야간 구분없이 교통안전이 취약함.
 - 안면-태안읍으로 연결된 도로에 신호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있고 신호체계도 맞지않아 시간이 오래 걸림. 신호등을 줄이거나 하상도로를 만들어 원활한 교통마련.
 - 가로림만에 가오등이 필요함.
 - 지역개발의 출발은 도로 인프라 구축으로 현재 도로의 폭을 4차선에서 차선으로 확충,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태안IC를 만들거나 대신에서 태안으로 바로 올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함.
-

5. 정주여건 개선 분야

- 맑은 공기를 찾아 귀농하였는데 양잠리 한국타이어 시험장이 생기며 초미세먼지 문제가 발생. 깨끗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고수해야 함.
 - 환경이 가장 중요함 관광과도 직결되어 쓰레기 소각 제제 및 미세먼지 줄이기가 필요.
 - 바다, 맑은 공기, 나무 등 환경이 가장 큰 강점인 태안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맑은 환경의 태안을 지켜야 함.
 - 타지인에 대한 차별이 있음. 방법순찰 차량 귀가서비스가 타지인에게는 기회가 없음.
 - 쓰레기 소형화 사업 추진관리(일본사례:히다찌 회사)
 - 마을내 분리수거 문제가 심각. 안면읍 시내 쪽 부분도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않음. 음식물 쓰레기함은 있으나 분리수거함이 없음. 또한 낙후된 의식구조로 환경교육이 필요함 재활용이나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
 - 기름유출극복기념관에 우리군의 희생에 관한 내용이 없고 외부인에 대한 칭찬뿐임. 극복하는 중간과정에 대한 세세한 내용과 피해 받은 분들에 대한 위로와 이해가 필요.
 - 현대자동차, 화력발전소의 개발보다 태양광 발전소를 발전시켜 미세먼지를 해결하도록. 태양광을 지워하면 노인분들이 직접 일하는것보다 좀 더 쉬운 일자리 마련이 가능 할 듯.
-

-
- 서산에 도시로 나가 거주하고 소비생활을 함. 태안에도 거주하는 환경이 되어야 장사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음.
 - 삶의 질을 군민을 최우선으로 해서 높여야 함. 버스 배차간격을 보다 짧게 조정하고 가로등을 확충해 저녁에도 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야 함.
 - 환경오염을 줄여 미세먼지를 완화하였음 좋겠음
 - 미세먼지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 서태안에서 미세먼지가 날리고 건강도 위협되고 농사에도 위협.
 - 귀농 귀촌인에게 텃세가 심각. 귀농인구만을 위한 맞춤 정책 프로그램 필요.
 -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문제, 기본적인 생활환경기반을 구축하여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유입방안 마련, 아이들 교육문제 등 노인의료, 응급의료와 함께 해결 필요.
 - 시장이 3개가 있는데 한쪽에만 치우친 지원을 해주고 있음 시장을 합쳐서 지원해 준다면 더 경제가 활성화 될 것.
 - 쓰레기를 좀더 자주 수거하고 적어도 관련 시설에 연락하면 바로 수거해가기라도 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태안에 국지성 호우로 물이 잠긴적이 있음. 시설은 다 해놨는데 유기관리가 안된 것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실과가 존재하지만 주체적으로 일하지 않고 누가 시켜야만 일을함.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담당자와 유지보수 계획이 필요함.
 - 태안 내에서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야 함. 태안읍에만 몰리는 것도 고쳤으면 좋겠음.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가 중요함. 기업도시라 만들어 놓고 골프장만 건립하고 환경오염이 안되는 기업이 들어왔으면 함.
 - 타 지역에 비해 습도가 많음. 쓰레기 소각 문제 해결. 분리수거 해결이 필요함.
 - 다양한 군민들을 위해 의료시설을 잘 갖춘 태안이 되었으면 좋겠음 산부인과나 소아과 노인전문의원 등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잘 갖춘 병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음.
 - 놀이시설, 테마시설(안면도) 등 공간을 마련하여야 관광객들이 정주할 수 있음 지금은 쓰레기만 버리고감. 볼거리와 먹거리가 부족함.
 - 빈집이나 낙후된 시설을 철거나 리모델링을 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관광을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함.
 - 쓰레기 분리수거(경로, 차, 인력)확대 현재로는 전 지역을 커버하기 힘들.
 - 국방과학연구소를 없애야 함. 경지도 좋고 자원도 많은데 이것 때문에 발전이 더딤.
 -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미세먼지 기준치를 상향조정해야 함. 태안과 서울 등 수도권과 기준치 차이가 있어 이 기준치를 같게 해서 규제해야 함.
-

-
- 환경개선이 필요함. 미세먼지 등의 해결이 필요.
 - 노후를 위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귀농하는 사람들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움 농촌에 적응할수 있도록 농촌 실정에 대한 교육 등을 했으면 좋겠음.
 -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서산의 석유화학 단지에서 동풍이 불면 미세먼지가 와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데 어떤 대책도 없고 강 건너 불 보듯 함. 태안은 주변의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미세먼지의 피해를 입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음.
 - 태안 읍내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있어 미관을 해침. 다가구 주택 주인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관리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태료가 필요.
 - 냉철골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주변 쓰레기며 화장실 관리도 안됨. 산불 위험, 쓰레기 불법투기도 많아 관리자가 필요.
 -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음 밤에 취객에 대한 위험, CCTV와 가로등 설치.
-

6. 복지 분야

- 노인 고령화 문제에 따른 마을 내 노인 공동체 시설이 필요함.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마을 고령화에 따른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의료시설 중심. 종합병원 마련 시급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실태조사를 통해 한정된 복지 지원이 갈수 있으면 좋겠음(다문화 가정 임대주택 입주 필요)
 - 노령화에 대처하는 주거공동체 노인복지시설 개선 문제가 필요. 의료나 복지수준 향상이 필요함. 산부인과나 의료장비의 현대화 부분이 필요. 응급상황이나 소아가 아플 경우 근처 대형병원으로 가는 문제가 있어 의료기기현대화화 전문의가 필요함.
 - 고령화 문제, 출산 장려금 등이 필요, 전남 고흥은 천만원 태안은 백만원으로 심각하게 비교됨. 강력한 출산 장려금 정책이 없으면 초고령화 된 일본 사회의 부정적인 면이 태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
 - 의료서비스 확충, 초고령화 지역이기 때문에 암검진 등 무료로 이용, 좋은 의사 초빙 요망.
 - 노인 복지분야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많음 혼자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음. 노인에 대한 복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며, 기초 생활 수급에 수혜자에 대한 재조사가 꼭 필요함.
 - 예산의 집중적 투자가 지향 될 필요가 있음 분산된 예산 지원은 효율적인 활용이 미흡한 결과를 야기시킴 특히 복지분야.
 - 복지를 모든 국민이 당연하게 받는 의식보다 진짜 필요한 계층에게 복지가
-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마을 회관 등
어르신들에게 장기적인 기간으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음.

- 다문화 가정을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을 늘렸으면 좋겠음. 각자 나라의
요리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가졌으면 좋겠음.
 -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정형외과가 필요함.
 - 노인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의료시설 및 의료진 구축이 필요.
 - 어르신들의 능력을 살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음
소일거리처럼 작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취미계발과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음.
 - 화상의료 시스템 구축과 위중환자는 헬기를 이용한 병원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최첨단 태안 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해양 헬스케어를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게 관과 민의 협동으로 관광
그룹을 지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음
-

7. 교육 분야

-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젊은층 유입을 해야 함.
 - 마을이장, 주민자치위원 등 교육이 필요함, 환경문제 교육 재활용 교육,
민간협력 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이 필요함
 - 태안의 교육여건개선 입시와 관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수준 확립 필요(강사모집, 공교육과 사교육 활성화)
 - 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컴퓨터 관련 교육 기관 필요. 현재 전무한 상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등으로 충족시켜야 할 것.
 -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주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 최상위권 학생들을 태안 학교에 진학 할 수 있는 교육 수준을 가졌으면
좋겠음 중위권 학생들도 지원을 해주어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음.
 - 면지역은 교육환경이 더 좋지않아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젊은층 유입이
되었으면 함.
 - 공무원이 소신행정 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필요함. 소신껏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무원 교육이 필요함. 마을 내 리더들 대상 교육, 농어업민 대상으로
집중교육이 필요.
 -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 성적위주의 교육이아니라 특성화분야(가산초등학교
오케스트라)를 지역특화로 키우는 교육발전방향이 필요함. 특성화학교로서
인문계가아니라 지역산업체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함.
 - 태안군내 이루어지는 행정이나 정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지도자, 부녀자,
마을 주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 예를 들어 불리수거 같은 실질적인
주민교육이 필요함.
 - 학부모들이 대학입시와 같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

좋겠음. 도시와 비교 했을 때 태안은 이런 정보가 부족하여 좋은 교육을 자식에게 전해주기가 어려움.

-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서산 팔봉중, 태안 원이중 등은 테블릿을 증정해서 교육함. 4차 산업이 도래함에도 아직도 종이로 교육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 테블릿 PC등의 보급이 필요함.
 - 장학금을 받을 목적으로 태안으로 유입되는 타지역 학생들 때문에 역차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방법으로 교육수준을 높여줬으면 함.
 - 태안 학생들이 취업을 잘하기 위해 지역사업체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 취업률을 높여야 함.
 - 태안의 미래가 발전하려면 인구가 있어야함. 젊은층 귀농귀촌할 수 있는 교육체계 인프라가 필요하며 특성화된 교육이 필요함. 태안의 빈 공간 시설이 많아 그런 시설을 활용했으면 좋겠음.
 - 현존하는 문화원에 미취학 아동들이 엄마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함. 여기저기에 조금씩 진행하는 것보다 한곳에서 종합하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8. 인구유입

- 태안군에 고려화가 70%인데 앞으로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이나 아기 보육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야 함.
 - 기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기업유치를 발벗고 나서서해야함.
 - 골프장 같은 것 말고 생산분야의 기업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음 인력이 많이필요한 기업 유치.
 - 태안에 인구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인구가 많아야 교육의료가 개선되며 기업유치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환경저해 기업은 지양해야 함.
 - 출산장려금 1명 500만원, 2명 1000만원, 3명 2000원으로 해야하며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확대해야함.
 - 제조업 IT관련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 공유지를 임대 및 취득세 절감을 통해 기업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태안군민 취업률 보장 조건)
 - 젊은사람이 일할 수 있는 호텔이나 바닷가 쪽에 리조트 등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활성화해야함.
 - 기업유치를 할 때 인구 유치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만 함. 골프장과 타이어 시험장으로는 인구 증가가 어려움. 인구 유치에 도움이 되는 중장기적 중소기업 유치 계획이 필요함.
 - 인구유입 계획이 필요함. 큰기업을 유치하고, 친절함과 바가지를 없애는 의식개선이 필요.
 - 태안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문화 시설 등 편의시설이 많아졌으면 좋겠음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음.
 - 노인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별 지원이 필요함. 특히 서부발전이
-

지원을 해주면 주민들의 불만도 어느정도 완화될 수 있고 경제발전도 될 수 있기 때문.

9. 민관소통 행정 강화

- 공무원이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거나 도전적인 과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과 동기부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함. 정책실행의 실패에 대한 징계보다는 격려를 하고 새로운 기회를 보장해야 함.
- 원탁토론회 같은 토론회를 통해 군청과 군민이 소통을 자주 하는 기회를 갖고 군 정책을 실시했으면 좋겠음.
- 정책을 수립할 때 주민참여 등을 통해 올바르게 정책을 만들어야 함.
- 대형기업 유치에 힘 써야 함. 발전소같은 경우 무조건 공해문제로 반대만 하기에 재정을 늘리는 것이 먼저임.
-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 시스템의 일원화 및 간소화가 필요함. 지역민이나 기업이 특정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때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함.
-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필요함 부서간 협력이 부족하며 담당이 아니면 협력을 안함.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하고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 종합민원 처리가 필요함.
-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태안군민이 사는 태안군이 되었으면 좋겠음.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더 낙후될 뿐.
- 행정서비스 중 출장서비스가 필요함. 이사, 입주, 하자보수 등 지역주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출장서비스로 제공해주면 좋겠음. 아파트 입주 L처리해야 될 절차가 많은데 전문적인 안내가 미흡함.
- 태안군 공무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연령별 직업군, 관심사 등에 따른 소통이 필요함.
- 군정활동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깨끗한 인사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음.
- 원탁토론회 같은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행사를 선거를 앞둔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매년 개최했으면 좋겠음.
-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경제발전이 필요함. 외부자원보다는 실질적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행정의 발전에 대한 마인드 변화가 필요함.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 참여형 의사 결정 방안을 도입.
- 출산을 장려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태안 만들기가 필요. 출산장려금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 전담 팀을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였으면 좋겠음.